

2015 새 설계

김성장흥군수

“3대 권역 개발비전 수립...힐링·휴식의 대표 고장 만들 것”

〈장흥권·정남진권·보림사권〉

‘어머니 품 같은 장흥, 어머니 같은 군수, 행복 한 군민’을 슬로건으로 출범한 김성 장흥군수.

김 군수는 “올해를 새로운 10년, 장흥발전의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의 해로 삼겠다”고 다짐 했다. 이를 위해 “군·읍면 공직자 모두가 겸허 하고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받들고, 군민을 부모님처럼 섬기면서 본격적인 ‘군민 존경시대’ 를 열어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김 군수는 올해 첫 과제로 힐링(치유)과 휴식 의 고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장흥권, 정남진권, 보림사권 등 3대 권역별로 개발비전을 수립한 다는 방침이다.

‘장흥권’은 이미 전국 명품시장으로 인기를 누 리고 있는 ‘장흥 토요시장’을 철거된 구도심을 포함해 문화관광형 체험시장으로 업그레이드시 키고 역불산 편백숲 우드랜드내에 힐링센터를 건립, 건강과 치유의 메카로 발전시키기로 했다.

‘정남진권’은 연안의 따뜻한 기후와 생태적 여건을 감안,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육지예 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릴 수 있는 ‘봄꽃 해안길 화 해단지’를 조성, 호남 5대 명산인 천관산과 연계 한 휴양관광 중심지로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.

‘보림사권’은 ‘동양의 3대 보림’(寶林)중 하나 인 보림사에 명상센터를 건립해 템플스테이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, 장흥담 인근에 조성된 심천 공원을 레저체험시설로 육성한다.

무산김·매생이 브랜드 높이고

내년 통합의학박람회 철저 준비

문학·역사자원 스토리텔링 박차

김 군수는 “잘사는 군민, 소득 높은 장흥을 위 해 다각적인 사업을 펴나가겠다”는 포부를 밝 혔다.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작목과 특새품목을 발굴, 소득기반이 취약 한 산간·오지지역의 소득원 개발에 박차를 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.

또한 장흥 대표 명품 특산물 표고버섯과 한 우 우수성을 살려 고소득 특화 품목으로 자리매 김할 구상이다.

장흥지역 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수산물소 득의 산실인 득량만을 인근 보성군과 연계해 청 정해역으로 선포, 장흥이 자랑하는 ‘무산(無酸) 김’과 ‘매생이’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원년의 해 로 삼겠다고 했다.

김 군수는 “내년 10월에 열리는 ‘장흥 국제 통 합의학박람회’는 총 40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100여만명의 관람객과 1620억원의 생산유발 효 과, 3190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 다”며 “장흥이 새로운 통합의학 1번지로 부각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아 개발준비에



2015년 주요 역점 사업은

- ▲ 힐링(치유)·휴식·건강 프로그램 개발
- ▲ 2016 국제 통합 의학박람회 준비
- ▲ 사할을 건 범군민 기업유치
- ▲ 정남진 해안 봄꽃단지 조성
- ▲ 지역이미지 재디자인 작업 착수
- ▲ 지역현안 상반기 가시화

박차를 가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이와 함께 김 군수는 장흥의 미래를 견인하는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조성고 목재 전문산업화 단지 조성 등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생각이다. 현재 117억원이 조성된 인재육성장학금을 150 억원까지 확대해 장흥을 명성있는 교육고장으 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는 김 군수의 야심에 찬 포부다.

김 군수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가지 ‘지역이미지 재디자인 사업’도 눈에 띈다. ‘문학 자원 세계화, 자연자원 명소화, 역사자원 현대 화, 스토리텔링 소재 발굴, 지역이미지’다

장흥출신 고 이청준 작가 선양사업을 비롯해 고 려말 공예태후(고려 제17대왕 인종의 비)를 재조 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장흥의 역사·문 화관광 자원으로 널리 활용될 방침이다.

또한 장흥지역 우위자원이 친환경 장흥담 물 의 우수성 인증을 받아 ‘정남진 물축제’와 연계 해 귀농·귀촌 홍보와 로하스타운 분양에 최대 한 이점을 살릴 생각이다.

이 밖에 지역현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구 교도소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(교정박물관과 범 죄예방 테마단지), 군 분청 청사부지 무상양여 (자산관리공사), 장흥담 수변공원 인수 문제를 가급적 올해 상반기 안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.

또한 장흥 해당 바이오산단은 기업유치가 핵 심인 만큼 사할을 열고 유관기관단체, 출향향우 등과 협력을 통해 분양률을 끌어올리고, 기업유 치 공로에 대해 과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 획이다. 또한 현재 전남개발공사와 논쟁을 벌이 고 있는 산단 인수문제도 군 재정에 피해가 없 도록 할 방침이다.

김성 군수는 “이미 지난해 결성한 장흥·강 진·영암 3개군 상생공동 협업체(국비 확보를 위 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사무소 등)를 보다 내실있게 공조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현재 장흥지 역의 낙후되고 촌스러운 골목길의 특유의 미학 과 여유를 간직한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될 것” 이라며 장흥의 장밋빛 미래를 예고했다.

/장흥=김용기기자·중부취재본부장 kykim@

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남 1위·전국 2위

여성부 주관 상담서비스 평가

‘헬프콜! 1388’ 운영 호평

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소장 위명은)가 여성가족부 주관의 청소년 상담서비스 전국 모 니터링 평가에서 전라남도 1위, 전국 공동 2위 를 차지했다.

이번 평가는 지난 2014년도 하반기 전국 203 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청소년전 화 최초 수신 상태, 상담진행 및 응대태도, 끝맺 음 등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 행됐다.

평가 결과 장흥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각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100점 만점 중 99.3점을 받아 전남 1위와 전국 공동 2 위에 이름을 올렸다.

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“지역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상담과 도움

을 받을 수 있도록 ‘헬프콜! 청소년전화 1388’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‘헬프콜! 청소년전화 1388’은 연중 24시 간 학교폭력과 가출, 비행 등의 위기상황 청소 년 문제를 비롯해 물론 이성교제, 학업,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있다.

이움을 원하는 청소년은 국번 없이 1388(헨 드폰의 경우 지역번호+1388)에 전화하거나, # 1388에 문자상담을 요청하면 된다.

/장흥=김용기기자·중부취재본부장 kykim@



영암소방서 안전다짐 결의대회

대불산단 등 26개 업체 참여



영암소방서(서장 문태후)는 최근 안전재해발생 근절을 위한 ‘안전다짐 결의대회’를 개최했다.

이번 결의대회에는 대불산단공단과 현대상호중 공업 등 26개 업체 36명이 참여해 기본 안전수칙 준 수를 통해 현장 위험요인 제거에 앞장설 것을 다짐 했다.

영암소방서 관계자는 “산업현장에서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근로자의 소중한 인명 을 보호할 수 있다”면서 “안전한 대불산단을 만들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/영암=대성수기자 dss@

강진군 농업예산 800억원 시대 열었다

작년보다 22억원 증가 825억원...역대 최대 규모

지원사업 주민설명회도 개최

강진군이 농업예산 800억원 시대를 열었다.

강진군 올해 농림·축산·수산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원이 증액된 82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 모이다.

군은 지난 13일 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인과 마을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농림·축산·수산 지원사업 주민설명회 를 가졌다.

이날 사업설명회는 농업인들의 복지강화와 안 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‘2015년 농림·축산·수 산분야 지원사업’의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개요 와 신청방법, 절차, 지원조건 등 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. 군은 올해 189개(549억원 규 모)의 농림축산수산 지원사업을 펼친다.

또한 군은 고령 중소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 와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농가들이 선호하 는 소규모 하우스와 농기계 등을 지원하며, 못자

리 없는 벼농사로 노동력의 65%를 절감할 수 있 는 ‘무논점파 농법’, 농업인 안전공제 등 실제 농 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차별화된 농업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. 농업회사 법인화 영농조합 법 인을 비롯한 대규모 농가는 규모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.

농가 도우미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가사부담 경감정책을 통해 농촌 일손부족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.

특히 ‘농·특산물 직거래지원센터’를 설립해 강 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센터를 통해 유통되도 록 함으로써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추진중이다.

강진군 관계자는 “올해 추진하는 농림·축산· 수산분야의 사업별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, 지 원대상, 사업내용, 신청기한 등이 자세히 정리된 책자를 농업인들에게 나눠줬다”며 “차별화된 농·어업정책을 통해 군민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 /강진=남철희기자 chou@

시내지국

광천	366-8375
광남	222-9440
남부	652-0175
동광	264-2012
동명	222-9054
동부	225-6001
문흥	267-4748
백운	673-4698
봉신	675-5530
북광주	525-3761
상무	372-2352
서광주	369-0583
송하	676-8605
신안	512-1732
양산	571-7658
양치	266-7601
옹봉	522-7752
우산	512-8116
운천	371-9818
월곡	961-2339
중암	222-1896
중흥	224-6604
진월	673-1600
단단	973-2900
충장	224-8212
치평	376-6511
풍암	682-8112
하남	959-1500
화정	375-9662

지방지사

광산	062)944-0444	남원시	063)626-1601
군산시	063)467-2500	순창군	063)653-0444
정읍시	063)531-5544	서울보급소	02)313-5962

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년

광주일보

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!

대(代)를 이어 읽는 신문

광고문의 _ 062 227-9600

신문구독 _ 062 220-0551

예향구독 _ 062 220-0550